

이렇게 들었다

공동체 삶

“연기법은 깊고 분명하다”

너와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 바로 부처님이 평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삶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같은 가르침을 잊은채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좇아 가족, 친구, 이웃, 자연의 소중함을 잊고 산 지 오래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각종 범죄와 대형사고, 환경오염 등도 너와 내가 하나라는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최근 교계에서는 도농공동체운동본부추진위원회, 사찰환경대책위원회, 사부대중공동체 등 공동체 삶을 실천하기 위한 모임들이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다시 함께 힘을 모아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공동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경전속 말씀을 통해 되새겨 본다. <편집자 주>

■ 지혜, 계율, 도덕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져서는 안된다. 자기를 남과 동등하게 대하거나 남보다 낫거나 또는 뛰어나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법구경>
 ■ 탐욕에 집착하면 마음이 캄캄해져 자기와 남을 해치게 된다. 그러면 현세에서도 죄를 받고 후세에서도 죄를 받기 때문이다. 분노와 어리석음에 집착해도 또한 그와 같다. 탐진치 삼독에 집착하게 되면 그 순간 사람은 밝은 것도 아니며, 열반에 이르는 것을 방해 할 뿐이다. 그래서 삼독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삼독을 끊으면 자기도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으며, 현세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후세에서도 과보를 받지 않게 된다. 마음은 언제나 기쁘고 즐거우며, 번뇌를 떠나 현세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전타경>

■ 정법(正法)을 섭수(攝受)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대지를 건넌다 4종(국토 및 일제종생)의 중임(重任)을 능히 짊어지며, 널리 중생을 위해 벗이 되고 대비(大悲)로써

중생을 안위하고 애민하여 세상의 범모(法母)가 된다. <승인경>
 ■ 과거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어떤 것은 오래 갔고, 어떤 것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 가르침이 오래 존속된 부처님들은 반드시 계율을 제정하여 제자들이 지키게 했다.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지 말라. 이 일은 생각하고 이 일은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좋고 이것은 잘 지켜라.” <사분율>
 ■ 나는 보름마다 여러 부처님의 계법(戒法)을 외운다. 너희들도 따라서 외우라... 모든 여래의 근본이고, 보살도를 행하는 근본이며, 모든 불자들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불자들은 받아서 지켜야 하고, 외워야 하며, 잘 배워야 한다.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법사(法師)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두 이 계를 받을 것이니, 계를 받음으로써 가장 청정한 자가 될 것이다. <법림경>
 ■ 자신의 명복이나 생활의 양식을 얻기 위해 출가자인 스승을 따라서는 안된다. 오

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공경하기 위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살하는 구도자를 따라라. <반야경>
 ■ 배고프고 궁핍한 중생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 중생들에게 의식(衣食)에 대한 공감을 없게 하겠다는 서원을 일으키는 것이 보시바라함을 닦는 마음이다. <대품인(비라밀경)>
 ■ 욕망과 인연되어 잡음(取)이 있고, 잡음과 인연되어 존재가 있으며, 존재와 인연되어 남이고, 남과 인연되어 늙음, 병, 죽음과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이 있으니, 이렇게 하여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더기가 모인다. 비유하면, 기름과 심지가 인연되어 등불을 켜는데, 거기에 때때로 기름을 더하고 심지를 갈면 그 등불은 언제나 밝고 꺼지지 않는 것과 같다. <잡아함경>
 ■ 아난다야, 연기를 참담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들은 어지러운 뿐, 생사를 뒤어넘지 못하는 것이다. 연기는 깊고 분명한 법이다. <중아함경>

자비의 벽돌 한장 쌓기

목·소·리



보각 소책자마을 원장

만약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한 가지를 틀리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권선(勸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착한 인연을 맺도록 해주는 일이야말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주 치악산 소재 소책자마을에는 의지할 곳 없는 노인 장애인 고아 등 2백 50여명의 대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아픈 사연들을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들이 갖고있는 사연들의 공통분모는 바로 사회로부터의 냉대와 멸시를 받으며 소외된 채 살아야 했던 과거의 아픈 추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도 일반인들처럼 떳떳하게 사회를 이루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승가원은 지난 97년 9월말경 강원도 횡성에 종합복지타운 부지 20만평을 매입, 금년 1월부터 '자비의 벽돌 한장쌓기' 운동을 통해 벽돌 1백만장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렇게 모여진 벽돌은 소책자마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새 보금자리를 조성하는데 쓰여질 것입니다. '자비의 벽돌...'은 인연없는 사람에게는 인연을 맺어주며 선업을 쌓도록 돕는 착한 공덕 쌓기의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이 캠페인이 전개된 지 수개월이 경과했지만 아직 참여율이 저조해 공사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방울이 물이 모여 넓은 바다를 이루고 한층의 흙이 모여 태산을 이루듯 종합복지타운 조성도 벽돌 한장 한장이 모이다보면 반드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불자여러분들께서 '자비의 벽돌 한장 쌓기' 권선과 적극적인 동참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비의 벽돌 1장 1만원, 문의 (02)928-0750)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인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꼭 써서 보내주세요.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88 <전자우편> : aum@hailbell.com

임창열씨 부부 합장사진 언론보도 불자들 '망연'

경기도행 퇴출을 둘러싼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7월 16일 한국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와 지방지 그리고 KBS MBC SBS 등 TV방송사는 임창열 경기지사 부부가 나란히 서서 합장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자료를 보도했다. 연합 뉴스가 제공한 문제의 사진자료는 임씨 부부가 지난해 신라호텔 호국법회에 참석했을 때의 사진으로 그들이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은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공인으로서 참석했을 뿐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 부부가 불교인이 아니라 엄연한 기독교인이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언론사들은 임씨 부부가 합장하는 모습의 사진자료를 무책임하게 게재, 삽입함으로써 독자와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치 불자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 1천만 불자들의 명예를 떨어뜨렸다.

김재일(보리방송모니터회장)

봉정암 2박3일 참배 '부처님세상' 절로 체험

아카시아꽃 향기도 사라져가고 녹음이 점점 짙어가는 초여름을 문앞에 두고 나는 도반들과 설악산 봉정암으로 떠났다. 강원도 백담사를 거쳐 오세암에서 하룻밤 관음기도를 마치고 봉정암으로 가는데 얼마나 멀고도 험난한 지 한 고개를 넘으면 또 한 고개, 이렇게 여섯 고개를 넘어가자 마지막 갈딱고개는 정말 고행이라 생각될 만큼 위험이 따랐다. 이러한 고행을 겪고 보니 입장소설이 아니

될 수가 없겠다 싶었다. 그러나 험난한 고개를 넘고 드디어 봉정암 사리탑에서 앞을 바라보니 산맥을 타고 병풍처럼 둘러싸인 우뚝 솟은 바위의 모습은 봉황처럼 부처님처럼 생김, 이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하고 아름다웠다. 힘겹게 올라오니 성취감과 감회가 더욱 깊었다.

2박3일 일정을 마치고 새벽에 수림계곡으로 내려오는데 그 경치 또한 장관이었다. 금강산이 장엄하다지만 여기 또한 못지않은 것 같았다. 어디선가 종겨오는 이름모를 향기속에서 우리 일행은 조심스럽게 하행을 했다. 유리같은 계곡의 옥수와 하늘을 찌를듯 뾰족히 솟아있는 계곡을 바라보면서 내려오는 길이 하일없이 길었지나 스카모니불을 열송하며 걸으니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처치가 불국토이고 그대모가 부처님의 향기로운 음성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봉정암 참배였다. 부처님적멸보궁을 참배한 감동은 일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건순(대전시 동구 기양 1동)

서로 다른 '불교수화집' 통일작업 서둘러야

최근 해성스님이 펴낸 <자비의 수화교실>과 지난해 강주수씨가 펴낸 <불교수화>의 내용이 서로 달라 청각장애인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또 모 교계신문에는 스님의 불교수화가 게재되고 있는데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본뜻대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절을 목탁과 집을 합친 단어로, 수행을 목탁을 치는 연습이라고 단편적으로 만들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수화도 엄밀히 말하면 언어의 일종이므로 한번 잘못 사용되면 바로잡기는 멧바나

로 한번 잘못 사용되면 바로잡기는 멧바나 어려움이 따를 것은 분명하다. 불교수화를 대중화하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보다 올바른 불교수화를 먼저 정립하고 보급해야 하지 않을까. 불교전체를 대표하는 수화가 될 수 있도록 중정회를 통해 보완이 선행된 이후 보급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강지비(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불교아닌 사이비불교 보고만 있어야 하네요"

내가 다니는 사찰 옆에는 미륵부처님을 모시는 '국제도덕협회'라는 길으로는 불교 비슷한 종교단체가 있다. 이 단체에 대해 일반인들은 불교도 알고 있고 절에 다니는 불자들조차 불교단체인가 혼동하고 있다. 그 단체의 교리책을 보면 석가모니부처님의 법문은 삼천년전으로 되어있고 그후에 오시는 부처님으로 미륵부처님이 기재되어 있다. 육조 스님의 법도 불교에 있지않고 자기네 종교에 있다는 등 터무니없는 글들로 불자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부처님은 생물을 초월한 법신이고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다는 경전의 말씀도 있는데 이 단체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시대가 끝나간다는 교리를 앞세워 교묘하고 있다. 이 말에 현혹되는 사람이 많았는지 웅장하고 화려한 몇 개의 건물을 세워 교세를 확장해가고 있다. 지난해 조계종 사태때는 스님들의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저 모습이 부처님시대가 끝나는 증거라 의처됐고 많은 불자들이 이 단체의 주장처럼 석가모니불 시대가 끝나는 줄 알고 이 단체로 물러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단체가 이렇게 억지주장으로 교세를 넓혀가는데도 불자들 누구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사찰 바로 앞에서 부처님시대 끝나간다고 외쳐도 항의하지 않고 무관심한 불자들이 스님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또 교주 스스로 미륵임을 자처하는 대순진리회나 증산교 같은 종교의 교리책을 읽어보면 부처님을 형편없이 격하시켜 표현하고 있고 스님들을 비하시킴에도 이 종교들은 사월초파일에는 어찌된 심인지 인연을 팔아 치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종교들은 전국적으로 신자들이 수십만을 헤아리고 불교가 아님에도 불교와 유사한 방편을 써 불자들을 혼란시키는데 불교 신자들과 스님들은 왜 가만히 있는지 답답하다. 종단에서는 이러한 유사 단체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그 심각한 폐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권은주(경남 진주시 옥동동)

동화사스님 고발 사태 수행자 본모습 아니다

대구불심을 상징하는 동화사 스님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고발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지켜보는 우리 불자들은 안타까움과 더불어 우려의 시선을 감출 수가 없다. 지난해 조계종 사태로 불교의 위상이 추락해 대로 추락했고 사찰을 찾는 신도수가 급감하는 시점에서 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면 내면 강조하는 스님들이 이제 신도들을 향해 뭐라 설법할 것인가. 수행과 전법도생애를 위해 입산한 스님들이 주지직과 같은 권력에 집착하는 것도 불성사님지만 같은 문종의 스님들을 매스컴을 통하여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세속법에 의지해 서로를 고발하는 것은 수행자다운 참다운 모습이라 할 수 없다. 팔공사 동화사는 옛부터 많은 선지식들이 수행하던 선기 퍼낸 곳이다. 이 동화사가 범행 그쪽한 옛 면모를 회복할 수 있도록 스님들은 수행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길 바란다. <한지호(대구시 남구 대명동)>

"중앙신도회장 선거는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여법하게 치뤄져야 하며, 총무원의 결정후에 대한 지원이나 간섭은 일체 없을 것입니다." 14일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자천 타천으로 신도회장 후보로 거론되던 한 신도단체 회장과 면담에서 밝힌 말이다. 하지만 중신회 선거의 중립을 천명한 고산스님과 달리 일부 총무원들이 특정 인사를 지지하고 사정선거 운동에 돌입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고산스

님의 면담 후에도 총무원이 특정인을 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예상되는 주위의 적극적인 추천에도 불구하고 신도회장 선거 후보등록을 22일 현재 포기한 상태다. 총무원장 스님이 모 인사를 추천만 했을 뿐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과 달리 총무원들이 막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일부에서는 총무원들이 고산스님의 뜻을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특정인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총무원들의 생각은 재가불교운동의 총흥이란 나름의 사명감과 어른을 모시려는 총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아무런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정당당히 선거를 치른다해도 다른 후보들이 결

계에 승복하리란 산스님 뜻과 달리 일부 총무원들이 특정 인사를 지지하고 사정선거 운동에 돌입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고산스님의 면담 후에도 총무원이 특정인을 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예상되는 주위의 적극적인 추천에도 불구하고 신도회장 선거 후보등록을 22일 현재 포기한 상태다. 총무원장 스님이 모 인사를 추천만 했을 뿐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과 달리 총무원들이 막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일부에서는 총무원들이 고산스님의 뜻을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목탁 소리 김재경 <취재 1부 기자>

간섭없는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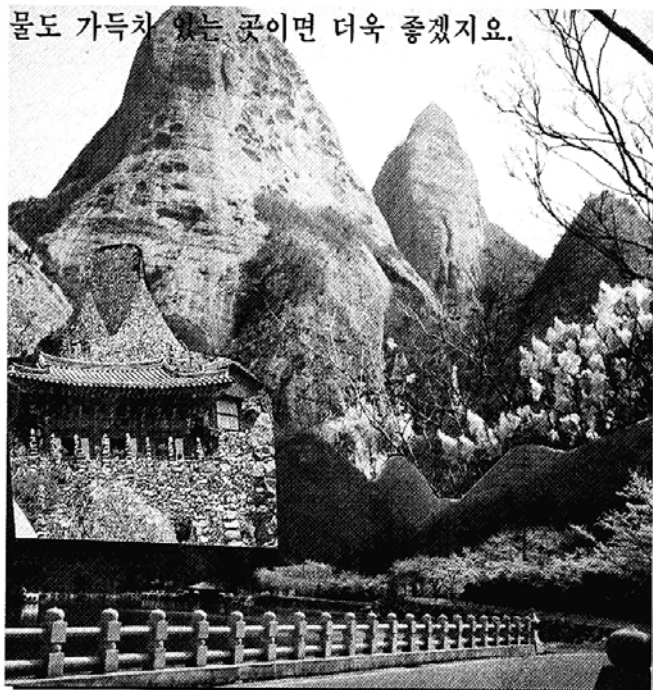
총무원이 공정한 개입을 보장한 선거를 보장한 것과 하더라도 선거와 신도란 종적 관계가 보이지 않는 위축심리 를 줄 것이 자명하고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타 후보들이 생각한다면 선거의 자유와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 97년 3월 당시 중앙신도회 초대 회장이 월주스님의 지명에 의해 선출돼 자율적인 신도회 건설에 실패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총무원의 철저한 중립을 통해 신도회의 자율적인 선거를 실현하는 길이란 불교 신도운동의 토대를 다지는 길임과 관계자들은 유념했으면 한다.

관광을 겸한 뱀생 어디가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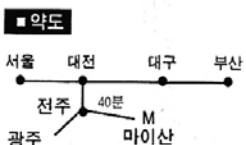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뱀생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0655) 433-2900, 0303
 (0655) 432-0652, 0072



· 관광과 뱀생을 한 곳에서 ·
 한국의 불기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뱀생기도

신개발품 시·연·쑥·뜸·기

난치병에서 피부미용까지

쑥뜸의 효능은 3,000년간 인정받았습니다. 피부에 전혀 손상없이 가정에서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한의사 대체의학 연구원이 상담해 드립니다.

- ▶목동치료장면
 - 프랑스의 슈미트 의학박사는 현대 의학상 외과수술에는 쑥뜸법으로 무슨 병이든 전부 치료할 수 있다고 격찬하였다.
 - 독일의 헤리 베르르 슈미트 박사는 쑥뜸법은 동양 의학에서는 과거의 유물일지 모르나 서유럽에서는 새로운 의학이 잠재성 있는 의학이다.
 - 일본의 원지명태양 의학박사는 쑥뜸의 새로운 연구는 의학 최첨단적인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의 양면을 동시에 해결해 준다고 하였다.

▶어깨걸림 치료장면

쑥뜸은 한국이러도 좋지 않은 분은 본사 제품 꼭한번 사용하세요.

※"시연 쑥뜸기"는 아픈 곳이 곧 치료됩니다.

· 각종질병 쑥뜸의 효능 ·		
만성피로	정력강화	고혈압
건비통	신경통	저혈압
간장병	당뇨병	요통
전립선	조루증	요증
피부병	생리통	위장병

만병의 원인은 피가 탁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오는 것인데 쑥뜸을 뜨면 백혈구와 적혈구가 증가하여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되어 병이 치유됩니다.

▶판매원 여러치신자연식품회사 ▶제조원 : 도훈건강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1138
 053-628-9145 / H.P 011-808-8880
 입금계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가격 : 200,000원(1set)
 압축속 1개월분(50,000원), 쑥뜸기일체, 안내책자(12,000원)포함